

## 특정사업 맞춤형 '고향사랑 지정기부' 보완 시급

'통일열차' 등 자치단체 선택 기부 제한된 기간 내 목표금액 미달시 일반기부 전환 조항에 참여 '저조' '크라우드펀딩 등 제도 보완 필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 특정 사업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고향사랑지정기부제'가 제한된 기간에 목표 금액을 모금하지 못하면 일반 기부로 전환될 수 있어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지자체 사업에 기부해도 제대로 활용된다는 보장이 없어 지정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고향사랑 기부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가 지원 대상과 사용처 등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가 시행됐다.

지정기부제는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는 일반기부와는 달리 기부할 때부터 어떤 사업에 기부할지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낸 기부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하고 기부를 하기 때문에 효능감도 크다.

그러나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모금이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반기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기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정기부제가 도입된 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모금 실적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지정기부 사업 중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목표 모금액 달성 10% 이하에 그치고 있는 등 기부자

자자체	사업명	모금 기간	목표액	모금률 (%)
광주 동구	발달장애 청소년 E.T아구단 지원	2024.6.4~2026.12.31	8200만원	17.44
	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	2024.8.1~2026.12.31	5억원	3.1
	광주극장 시설개선·인문문화 프로그램	2024.6.4~2026.12.31	2억원	7.13
광주 남구	통일 호도 열차 지원	2024.6.4~2026.12.31	6억800만원	3.66
	광주 남구-시간우체국 조성	2024.6.4~2026.12.31	4억원	6.16
곡성군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2024.7.25~2024.12.31	2억5000만원	14.09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지원 프로젝트	2024.8.5~2024.12.31	3억6100만원	4.17
영암군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운영	2024.10.2~2024.12.31	2억7000만원	12.03
나주시	안세영 기념공간 조성·꿈나무 육성	2024.10.18~2027.10.17	20억원	0.2
	타오르는 강 문학관 조성 지원	2024.10.25~2027.10.24	10억원	0.57

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자체들의 지정기부 사업 모금률을 살펴보면 △동구 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 3.1% △동구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7.13% △남구 통일 호도 열차 지원사업 3.66% △남구 시간우체국 조성사업 6.16% △곡성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빨래방 프로젝트

10.35% △곡성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지원 프로젝트 4.17% △영암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운영 12.03% △나주 안세영 기념공간 조성 및 꿈나무 육성 사업 0.2% △나주 타오르는 강 문학관 조성 지원사업 0.57% 등으로 기부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가 고향인 박운아(29)씨는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아 이왕이면 관련 사업에 기부하고 싶어 나주시의 문학관 조성 사업에 대해 알아봤으나 일반기금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목표 모금액 10억원에 모금 기간이 2년이었지만 현재 모금률이 1%도 안되고 기부참여자가 10명에 불과해 기간 내 목표액을 채워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 결국 기부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정기부는 원칙적으로 일반기부와 구분해 사용해야 하나, 모금 기간 내에 목표금액이 쌓이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해당 지자체가 각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치고 행안부와 협의의 통해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기부 모금액을 일반기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2면에 계속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 완도수목원,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지정

산림청 '생물다양성 보전 지원' 104종 식물자원 체계적 수집·증식

전남완도수목원이 산림청으로부터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제2024-03호'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희귀·특산식물의 수집·증식·보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림청이 지정한다.

완도수목원은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서 희귀식물 90종, 특산식물 24종을 포함한 총 104종의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관리인력 등 지정조건을 충족해 이번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완도수목원은 앞으로 체계적 수집·증식 등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림청으로부터 위탁사업 등 국고 지원을 기반으로 지속적 관리와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국가생물자원의 체계적 증식관리 업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완도수목원은 앞으로 전남 산림자원의 다양성 확보, 희귀·특산식물의 안정적 보전과 증식을 위한 희귀·특산식물 보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석면 완도수목원장은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고유 희귀·특산식물을 보전하고,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전남지역 자생종 보호를 통해 다양한 산림생명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 광주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2024 광주광역시의회 선플우수의원상 시상

광주시의회 선플우수의원상 시상식 2024년도 광주시의회 선플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강수훈, 김나운, 임미란 의원과 배석일 정광교 교장, 정광교 학생 등이 20일 광주 정광교교 녹야원 대회의실에서 '2024 광주시의회 선플우수의원상 시상식'을 갖고 존중과 배려의 선플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선플운동은 전남일보와 (사)호남미래포럼, (재)선플재단이 주최했다. ▶ 관련기사 3면 나건호 기자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ENERGY SENSE CAMPAIGN**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